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정치 정체성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서론

국민이 가지는 정체성은 집단적인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 국민들이 자기 역사에 대해 자긍심이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높아지고 역사적 기억은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36년간의 일제 강점,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오랜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화의 경험, 압축적 산업화와 경제적 도약 등 역동적인 역사적 변화를 겪었던 한국인에게 역사적 기억은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의 경험은 반공주의와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이념과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시키는 집단 기억으로 작용해왔다(김동춘 2011).

그러나 개인과 사회집단에 따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인식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이 충돌하기도 한다. 해방정국에서 단일민족국가 건설을 추구했던 정치세력에게 해방 3년은 좌절과 실패의 역사로 기억되지만, 이승만 지지자의 시각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건설을 이루어낸 성공의 역사이다. 또한 한국전쟁은 참전용사들에게는 조국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기억이겠지만, 양민학살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는 아픔과 배신의 기억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 따라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상반된 관점의 충돌이 한국사회의 이념갈등과 정치쟁점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최근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논란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는 광복회장의 비판은 역사문제가 현재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 상이한 역사해석의 대결 현상은 민주화의 산물이다. 이승만 정부부터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반공 이념과 냉전질서의 제약이 강했기 때문에 현대사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유신체제 기간에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관점이 충돌하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이념적 다양성이 허용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민주화가 진행되고 이념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보수적인 주류 역사해석에 대한 도전이 진보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박태균의 표현처럼 1980년대는 진보세력이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이다. 냉전과 보수 이데올로기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종속이론과 좌파 이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김호기·박태균 2019). 특히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리즈 6권은 박현채, 강만길 등 진보성향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책들은 해방 전후의 사회변동을 분단체제의 형성과정으로 제시하였는데, 냉전의 구조화라는 국제적 상황과 좌우합작, 농민과 노동운동의 국내적 변동을 ‘민중적-민족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방전후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송건호 외 2004; 강만길 외 1985; 박현채 1987). 더불어 진보 학계는 한국전쟁의 발발 책임과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명,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 성격과 노동 통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등을 통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를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로 미화해왔던 주류 시각에 도전하였다(박명림 외 2006; 손호철 2011).

2000년대에 진보진영의 역사해석에 대한 반론이 새로운 우파를 의미하는 뉴라이트(New Right) 세력에 의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시민운동단체가 2004년 출범한 자유주의연대이고 2007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확대되었다. 뉴라이트를 이끄는 다수 인사는 기존 우파가 아닌 진보세력과 주사파 등 운동권 출신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이다. 뉴라이트는 기존 보수의 퇴행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진보진영의 낡은 이념과 극단적 대립을 극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뉴라이트 진영은 진보 진영의 민족지상주의와 민중주의에 치우친 역사적 관점, 현대사를 좌절과 반칙의 역사로 보는 부정적인 역사해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비판하였다. 뉴라이트 진영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이후의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역사적 시각을 제시하였다(이인호 외 2009).

민주화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상반된 이념적 시각에 기초한 역사해석간의 대립, 즉 역사해석의 이념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계의 대립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개입하는 역사해석의 정치화 현상이 진행되어왔다. 역사해석의 정치화를 촉발시킨 계기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쟁이었는데 학계, 시민사회, 정부가 역사해석 논쟁에 가담하여 충돌하였다. 2003년부터 검인정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보수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인정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비판을 주도하는 학자들이 뉴라이트 세력이었는데, 2005년 ‘교과서포럼’을 설립하고 진보학계의 역사해석에 대항하는 저작과 대안교과서 출간을 시도하였다. 학계와 시민사회 내에서 진행된 역사해석 논쟁에 이명박 정부가 개입하여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역사학계의 반발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는데, 과거 유신체제처럼 역사해석을 정부가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였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중단되었다(임병철 2016; 심용환 2015).

한국 현대사에 관한 이념적 대립과 논쟁을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요약하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진영의 현대사를 보는 관점은 현대사를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역사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하

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을 눈감거나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불의를 정당화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진보진영의 현대사를 보는 관점은 한국 현대사를 정당성이 취약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고 불의와 반칙이 만연한 좌절의 역사로 인식한다. 이러한 역사관은 구조화된 불의와 적폐를 청산하는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취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과거의 적폐 청산과 개혁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국가 비전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더불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연령대, 출신 지역,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대립해왔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국부로 보는 긍정적 평가와 분단을 초래한 독선적 권력자로 평가하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해왔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보는 견해는 이승만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유영익 2013). 단독정부 수립은 당시 미국과 소련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북한과 소련의 유착과 사회주의 국가 수립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호한다(한배호 2008).

반면 진보학계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노선과 행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더불어 해방 이후 미군정과 친일파에 기대어 권력을 장악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해서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권력욕으로 장기집권을 추구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하야하는 결말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강만길 외 1985; 민족문제연구소 2012).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를 산업화의 주역으로 보는 긍정적 관점과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자로 평가하는 관점이 극명하게 대립해왔다(김일영 1995). 산업화의 주역으로 보는 견해는 근대화의 비전을 가지고 산업화를 주도한 박정희 리더십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한다(송복 외 2017). 반면 진보진영은 그가 삼선개헌과 유신체제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고 장기독재를 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과 노동자 농민에 대한 체계적 억압과 배제를 자행하였다고 평가한다(조희연 2010).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은 박정희 리더십이 아니라 높은 교육 열과 근면성,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탄압과 희생, 우호적인 국제경제 환경이라고 주장한다(서중석 2017; 손호철 2011).

이렇듯 한국의 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인식은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국민의 정치적 정체성에 따라 같은 역사적 사건을 보는 시각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 장의 목적은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역사인식을 알아보고, 2005년 1차 조사부터 올해 4차 조사까지 네 차례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역사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정당지지와 이념성향 등 정치적 정체성에 따라 한국인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정치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내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한민족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해방정국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 학력 수준별, 그리고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살펴볼 것이고, 나아가 2005년 1차 조사부터 2020년 4차 조사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승만 초대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정치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연령대, 출신 지역, 지지정당, 이념성향에 따라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정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정체성을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 II. 한민족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 1.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표 1>은 한국 국민이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59.2%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응답이 35.1%,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나이드는 세대일수록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60세 이상에서는 69.2%인 반면, 18세-29세의 경우 46.7%에 불과해서 큰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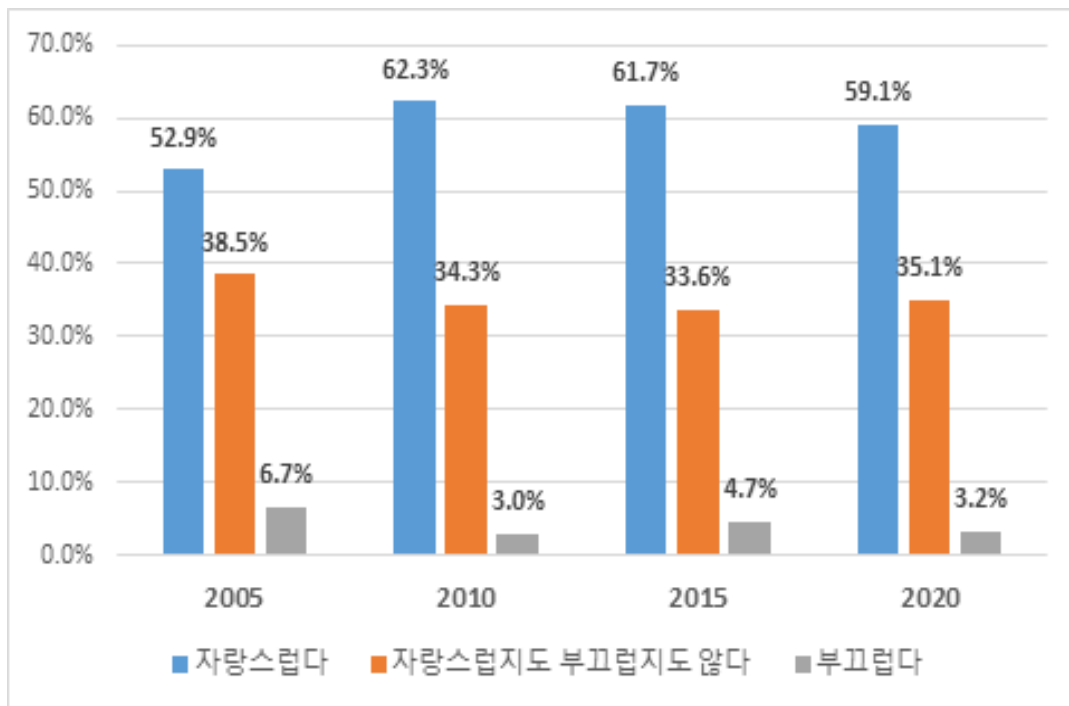
학력 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정의당 지지자들의 역사 자긍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역사 자긍심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보와 보수층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은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2005년 52.9% 였지만 2010년 62.3%, 2015년 61.7%로 뚜렷하게 증가했다가 2020년 조사에서는 59.1%로 약간 감소하였다. 부끄럽다는 응답은 2005년 6.7% 였지만, 2010년 3.0%, 2015년 4.7%, 2020년 3.2%로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즉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부정적 역사인식(소위 자학사관)을 가진 국민들은 극히 소수이고, 최근에는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기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 많을수록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조사결과이다.

&lt;표 1&gt;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이다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편이다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모름/ 무응답
<b>전체</b>	<b>9.6</b>	<b>49.6</b>	<b>35.1</b>	<b>2.8</b>	<b>0.4</b>	<b>2.6</b>
<b>연령</b>						
18-29세	6.0	40.7	44.5	4.4	1.1	3.3
30대	8.1	49.7	37.9	1.2	0.0	3.1
40대	11.6	47.4	38.9	1.1	0.0	1.1
50대	7.6	50.5	34.8	3.0	0.0	3.0
60세이상	12.9	56.3	24.6	3.7	0.7	4.4
<b>학력</b>						
중졸이하	11.6	62.3	20.3	4.3	0.0	1.4
고졸	9.3	48.3	36.3	2.3	0.5	3.5
전문대재학	9.3	47.0	38.4	2.8	0.4	2.2
이상						
<b>지지정당</b>						
더불어민주당	11.1	52.6	32.2	2.1	0.0	2.1
미래통합당	10.0	50.2	32.3	3.0	1.0	3.5
정의당	8.7	43.5	47.8	0.0	0.0	0.0
기타 정당	9.7	54.8	32.3	3.2	0.0	0.0
<b>이념성향</b>						
진보	9.4	51.9	33.4	2.3	0.3	2.6
중도	8.8	48.6	37.9	1.9	0.2	2.6
보수	11.1	48.5	32.1	5.0	0.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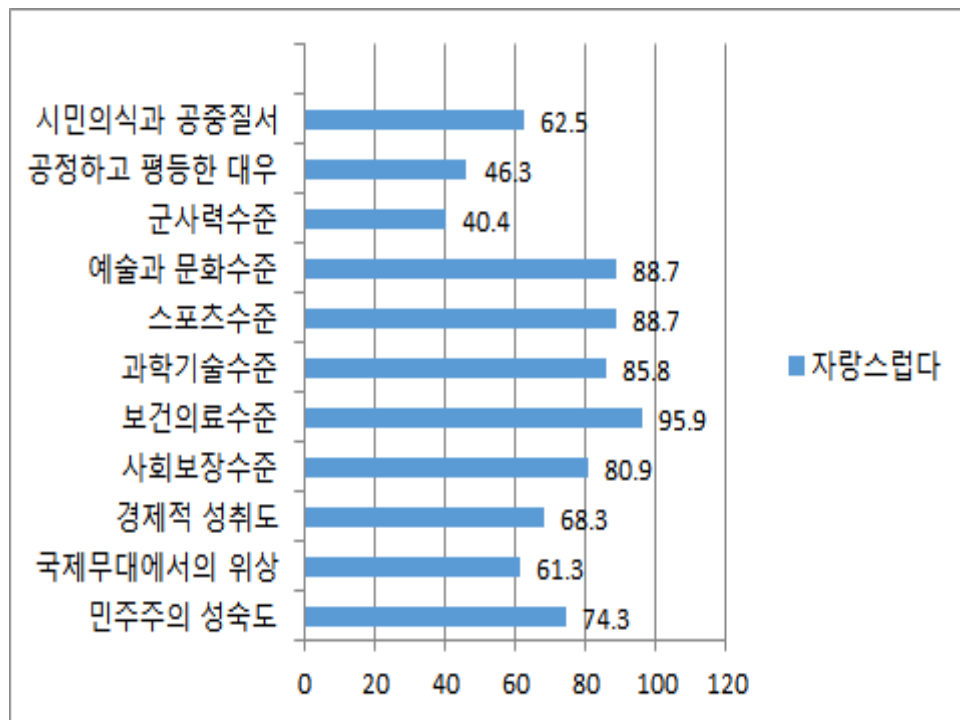
&lt;그림 1&gt;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의 변화 추이(2005-2020)



## 2. 영역별 국가 자긍심

<그림 2>는 국가 자긍심을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귀하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와 ‘대체로 자랑스럽다’의 응답을 합한 비율을 영역별로 표시하였다. 보건의료 수준이 95.9%로 가장 높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보건의료 영역 이외에 예술과 문화(82.9%), 스포츠(88.7%), 과학기술(85.8%), 사회보장(80.9%)이 자랑스러운 영역으로 평가된 반면, 군사력 수준(40.4%)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46.3%),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61.3%) 등은 상대적으로 자랑스럽지 않은 영역으로 꼽혔다.

&lt;그림 2&gt; 국가 자긍심의 영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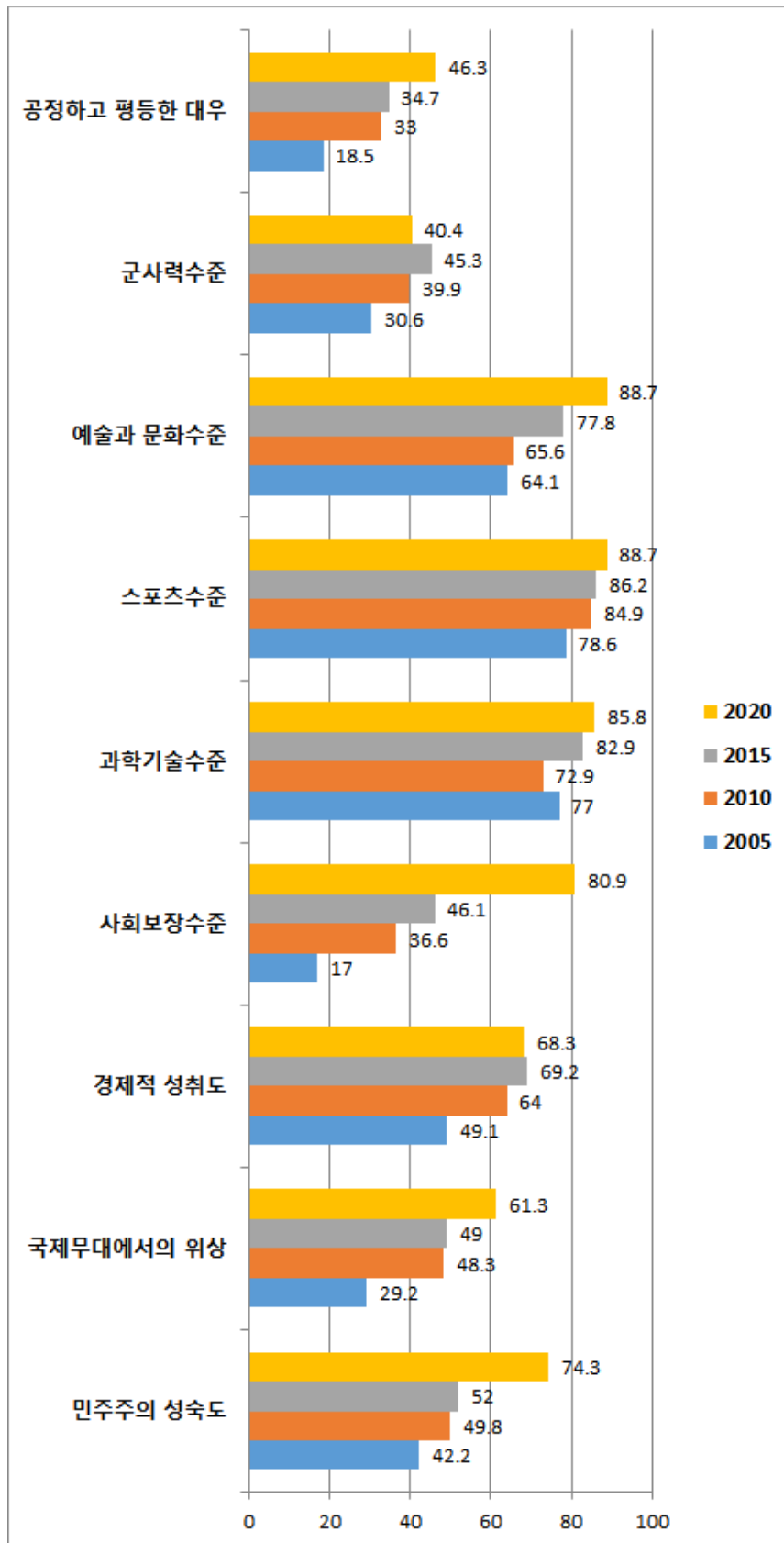


주: “귀하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와 “대체로 자랑스럽다”의 응답을 합한 비율

<그림 3>은 영역별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네 번의 조사에서 국가 자긍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의 전 영역에서 2005년 이후 국민들의 자긍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특히 이전 조사에 비해 2020년 조사에서 자긍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조사가 실시된 6월에 전 세계가 COVID-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국의 모범적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양되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lt;그림 3&gt; 영역별 국가 자긍심의 변화추이 (2005-2020)





### III.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평가

해방 3년은 단일 민족국가의 설립에 실패하고 남북한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체제가 형성되고, 미군정과 이승만의 주도 아래 좌파와 중도파가 배제되고 보수가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반공자유주의 정치질서가 자리 잡는 시기였다(박찬표 2010; 최장집 1985). 38선 획정과 미군정 통치, 좌파, 우파, 중도파 세력 간의 주도권 경쟁, 반탁과 신탁 논쟁, 단일정부 협상 실패와 단독정부 수립, 미흡한 일제잔재 청산 등을 둘러싸고 노선투쟁과 갈등이 벌어졌다. 따라서 해방 3년 시기의 주요 정치 지도자와 정치세력 등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과 정치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

해방 3년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들을 포함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해방정국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문항을 통해 해방 3년 시기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 문항은 “해방 직후 남북한에서 다음 지도자나 정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네 개의 응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표 2>는 해방정국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가 미친 영향을 ‘매우 긍정적’이거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를 합산한 긍정적 평가 비율을 보여준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49.1%, 부정적 평가 50.9%로 상반된 평가가 대립한다.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49.3%, 부정 평가 50.7%로 평가가 엇갈렸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미국정부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그리고 연령대별로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졌거나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승만과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승만과 미국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0세 이상 응답자들의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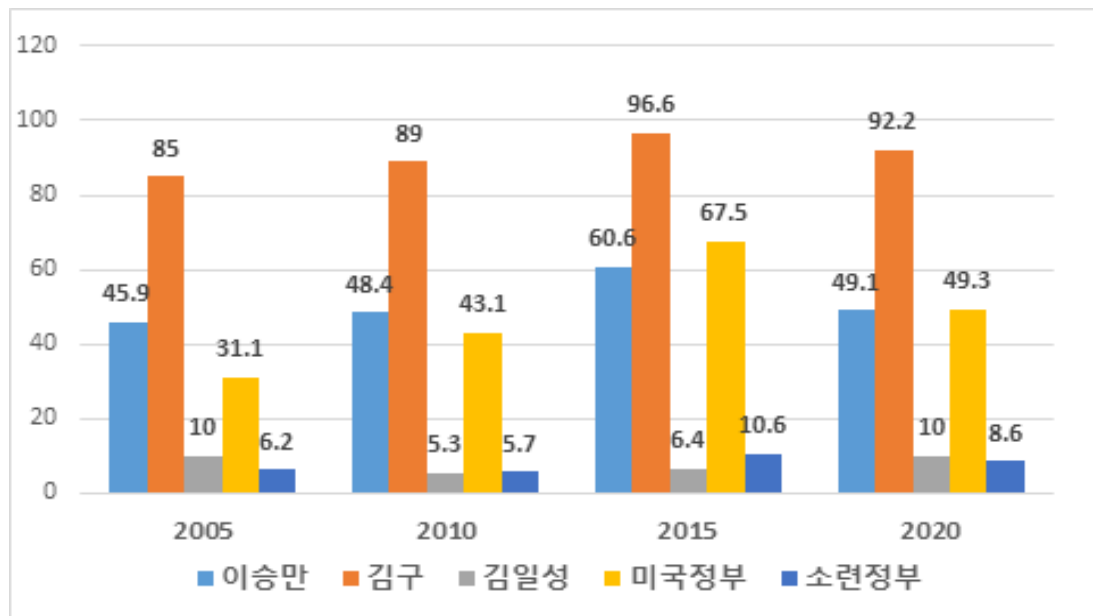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이념성향, 지지정당, 연령대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김일성과 소련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연령대에 관계없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gt;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

	이승만	김구	김일성	미국정부	소련정부
전체 평균	49.1	92.2	10.0	49.3	8.6
이념성향					
진보	39.3	93.2	10.1	36.0	7.8
중도	48.8	90.7	10.5	51.6	9.5
보수	60.7	93.9	9.2	61.1	8.0
연령					
18-29	47.3	89.0	9.9	46.2	7.7
30대	42.9	92.5	9.3	45.3	10.6
40대	44.2	90.5	11.6	47.9	9.5
50대	47.5	94.9	12.1	48.5	9.1
60세이상	58.5	93.4	7.7	55.1	7.0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41.5	91.9	9.0	42.4	9.4
미래통합당	63.2	93.0	13.9	62.7	8.0
정의당	39.1	82.6	4.3	43.5	8.7
기타 정당	61.3	100	19.4	48.4	9.7

<그림 4>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5년 45.9%에서 2010년 48.4%, 2015년 60.6%로 증가했다가, 2020년 49.1%로 다시 하락했다.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5년 31.1%에서 2010년 43.1%, 2015년 67.5%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조사에서 49.3%로 하락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정부에 대한 평가가 매우 비슷한 변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었고, 김일성과 소련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lt;그림 4&gt;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의 변화 (2005-2020)



#### IV. 한국전쟁 책임에 대한 평가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이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도 반공 이념과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대결 구도가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와 정치체제에 중요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손호철 외 1991; 전상인 2000).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전쟁 발발의 책임, 중공군의 참여, 반공포로 석방 문제, 민간인 학살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고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상이한 해석이 충돌해왔다(박명림 2003). 그러나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문항의 제약으로 한국전쟁에 관한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관한 문항만이 포함되었다.

<표 3>은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관한 설문에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소련, 중국, 미국, 남한의 순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진보층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보수층은 북한,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는 미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북한과 소련, 중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북한과 중국 책임 비율이 높고, 미국 책임 응답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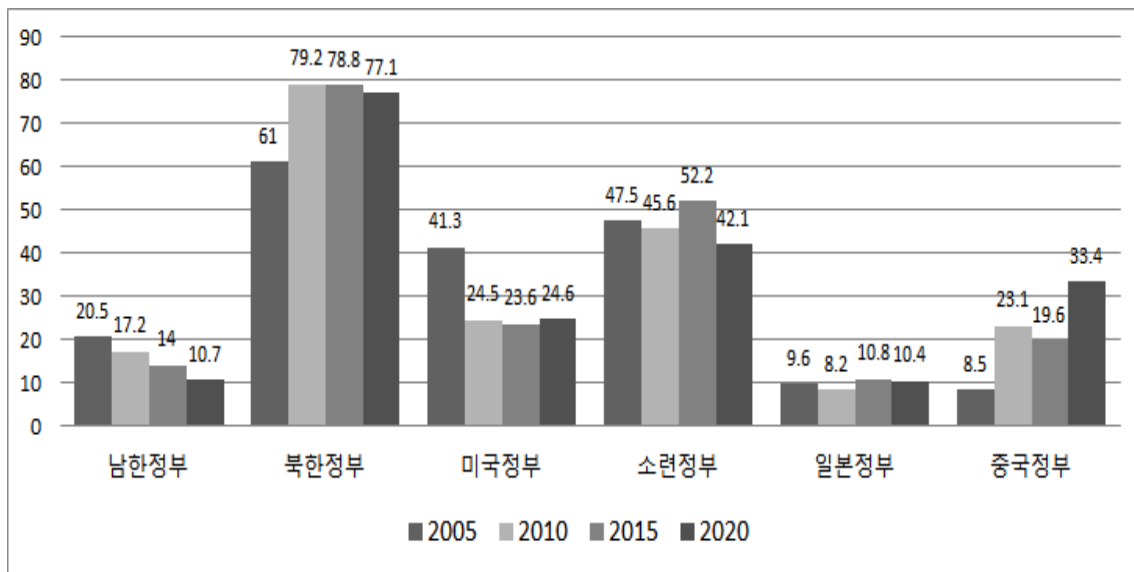
&lt;표 3&gt;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1+2 순위) (%)

	남한정부	북한정부	미국정부	소련정부	일본정부	중국정부
전체	10.7	77.1	24.6	42.1	10.4	33.4
이념성향						
진보	10.1	74.0	30.8	39.9	10.4	33.8
중도	12.3	74.9	25.3	45.3	11.2	29.3
보수	8.8	84.0	16.4	39.3	8.8	39.7
연령						
18-29	11.5	75.8	21.4	44.5	12.1	31.3
30대	11.8	75.8	32.3	39.1	12.4	28.6
40대	11.1	77.9	24.2	41.6	8.9	33.7
50대	10.1	68.7	29.3	43.9	13.6	33.6
60세이상	9.6	84.2	19.1	41.2	6.6	37.1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10.6	73.3	28.0	42.2	14.0	30.1
미래통합당	10.0	80.1	20.9	44.8	7.5	33.8
정의당	17.4	69.6	30.4	43.5	13.0	26.1
기타 정당	16.1	71.0	35.5	32.3	19.4	25.8

### 1. 한국전쟁 발발 책임 정부에 대한 역사인식의 변화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가 <그림 5>이다.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2005년 조사에서는 남한정부와 미국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당수 높았다. 북침설과 미국정부 음모설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2010년 조사부터는 남한정부와 미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북한과 소련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더불어 중국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늘어난 추세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책임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남침설이 정설로 굳혀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련외교문서의 공개를 통해 한국전쟁을 김일성이 기획했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자료들이 나타나면서 밝혀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박명림 1995).

&lt;그림 5&gt;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2005-2020)



## V. 역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객관적인 업적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반영한다. 더불어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등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역균열이 작동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역대 대통령의 지역적 연고가 국민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조사 시점의 정치적 분위기, 특히 주요 정당의 지지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결과로 새누리당과 관련된 역대 정부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1. 정치발전에 미친 역할에 대한 평가

<표 4>는 역대 정부의 정치발전에 미친 역할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가 1위를 차지했고, 김대중, 문재인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4위는 박정희 정부로 조사되었는데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고려하면 이외의 결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높은 호감도가 정치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연결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명박, 전두환, 박근혜 정부가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lt;표 4&gt; 역대 정부의 정치업적 평가(2020년 조사)

대통령	평균 값	표준편차	순위
이승만	2.37	0.72	6
박정희	2.67	0.86	4
전두환	1.96	0.80	9
노태우	2.06	0.65	7
김영삼	2.50	0.65	5
김대중	2.84	0.66	2
노무현	2.95	0.69	1
이명박	2.05	0.71	8
박근혜	1.89	0.73	10
문재인	2.79	0.75	3
전체	2.24	0.36	

주: “다음의 역대 정부들이 정치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대체로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 2. 경제업적 평가

역대 정부의 경제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표 5>를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지도자로 보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 국민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부가 2, 3, 4위를 차지했는데, 이 결과는 각각의 정부 집권시기의 경제성장률이나 객관적 경제업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9, 10위를 차지했는데 이 조사결과는 2020년 조사 시점의 정치적 분위기, 특히 미래통합당의 낮은 정당지지도가 역대 정부 업적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lt;표 5&gt; 역대 대통령의 경제업적 평가(2020년 조사)

대통령	평균 값	표준편차	순위
이승만	2.35	0.68	6
박정희	3.30	0.66	1
전두환	2.41	0.80	5
노태우	2.19	0.65	8
김영삼	2.31	0.63	7
김대중	2.74	0.64	3
노무현	2.77	0.66	2
이명박	2.13	0.72	9
박근혜	1.93	0.69	10
문재인	2.64	0.71	4
전체	2.48	0.35	

주: “다음의 역대 정부들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대체로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 3. 종합업적 평가

<표 6>은 역대 정부의 종합업적을 정치업적과 경제업적을 가중치 없이 더해서 평가한 결과이다. 종합업적은 정치, 경제 영역 이외의 다른 분야의 업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조사에는 남북관계 업적 문항이 있었으나, 남북관계 업적이 북한 상황이나 국제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종합업적 평가에서 박정희 정부가 1위를 차지했고,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정희 정부는 1위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향수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최하위로 평가된 결과는 흥미롭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박정희 리더십과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회고적 지지를 의미하는 박정희 노스탤지어(nostalgia)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강우진 2020).



&lt;표 6&gt; 역대 대통령의 종합업적 평가(2020년 조사)

대통령	평균 값	표준편차	종합업적 합산 순위
이승만	4.72	1.28	6
박정희	5.97	1.28	1
전두환	4.37	1.39	7
노태우	4.26	1.14	8
김영삼	4.81	1.09	5
김대중	5.58	1.14	3
노무현	5.72	1.20	2
이명박	4.18	1.29	9
박근혜	3.82	1.29	10
문재인	5.44	1.33	4
전체	5.44	0.35	

주: 역대 대통령들의 종합업적은 정치업적과 경제업적을 가중치 없이 더해서 평가.  
 긍정적 평가 최대값 8, 최소값 2.

<표 7>은 역대 정부의 종합업적 평가를 연령대, 거주지, 이념성향, 지지정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이 표를 통해 역대 정부의 업적 평가가 연령대, 거주지, 이념성향, 지지정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 이상 응답자들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무현 정부는 50대 미만 젊은 연령대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지역에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에 따라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큰 편차가 나타난 것도 예상되는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와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업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lt;표 7&gt; 역대 정부 종합업적 평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b>전체</b>	<b>4.72</b>	<b>5.97</b>	<b>4.37</b>	<b>5.58</b>	<b>5.71</b>	<b>3.81</b>	<b>5.43</b>
<b>연령대</b>							
18-29세	4.55	5.59	4.03	5.48	5.75	3.47	5.31
30대	4.49	5.75	4.39	5.67	5.85	3.69	5.48
40대	4.47	5.87	4.28	5.71	5.84	3.58	5.62
50대	4.83	6.05	4.41	5.59	5.69	3.89	5.50
60세이상	5.04	6.38	4.60	5.51	5.54	4.24	5.32
<b>거주지</b>							
서울	4.74	5.57	4.07	5.65	5.64	3.80	5.31
대전/충청	4.62	5.95	4.35	5.77	5.85	4.03	5.74
광주/전라	4.72	5.67	3.64	6.25	6.52	2.89	6.58
대구/경북	5.24	6.62	4.90	5.01	5.23	4.27	4.64
부산/울산/경남	4.63	6.26	4.99	5.20	5.63	4.34	5.25
<b>지지정당</b>							
더불어민주당	4.45	5.62	4.00	5.92	6.16	3.43	6.07
미래통합당	5.24	6.72	5.21	4.99	5.07	4.78	4.42
정의당	4.87	5.73	3.96	5.54	6.17	3.65	5.56
<b>이념성향</b>							
진보	4.34	5.58	3.96	5.79	5.96	3.52	5.85
중도	4.79	5.96	4.38	5.63	5.86	3.72	5.55
보수	5.05	6.44	4.84	5.27	5.23	4.33	4.79

#### 4. 역대 대통령의 종합업적 평가의 변화 추이

<표 8>은 역대 대통령의 종합업적 평가가 2005년 1차부터 2020년 4차 조사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해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집권시기인 2005년 조사에서는 하위권인 5위에 그쳤지만 퇴임 이후에 평가가 좋아졌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시기인 2010년 조사에서는 4위로 평가되었으나 퇴임 이후 평가에서 9위로 추락하였다. 부패 의혹과 사법처리 상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업적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는 최근 주요 선거에서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속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미래의 집권세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회고적 투표 이론이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참패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이 있는 유권자의 처벌심리도 작동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8> 역대 대통령 종합업적 평가의 변화 추이(2005-2020)

	2005년 조사		2010년 조사		2015년 조사		2020년 조사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이승만	4.53	3	4.60	5	4.99	4	4.72	6
박정희	6.65	1	6.44	1	6.46	1	5.97	1
전두환	4.43	4	4.49	6	4.82	5	4.37	7
노태우	3.76	6	4.00	8	4.33	8	4.26	8
김영삼	3.72	7	4.27	7	4.47	7	4.80	5
김대중	4.69	2	5.34	3	5.40	3	5.58	3
노무현	3.94	5	5.40	2	5.48	2	5.71	2
이명박			4.77	4	4.30	9	4.18	9
박근혜					4.61	6	3.81	10
문재인							5.44	4

주: 역대 대통령들의 종합업적은 정치업적과 경제업적을 가중치 없이 합산해서 산출.

긍정적 평가 최대값 8, 최소값 2임.

## VI. 역사인식과 정치 정체성

앞에서 해방 이후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내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더불어 이승만 초대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앞의 분석을 통해 정당지지와 이념성향 등 정치적 정체성이 한국인의 역사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앞의 분석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정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역사인식과 정치 정체성 사이에는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이라는 두 차원의 정치 정체성에 주목할 것이다. <표 9>는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역사인식과 관련한 독립변수들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인식과 역대 정부업적 평가 변수들로 나누어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이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구, 사회경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연령, 학력, 대구·경북 출신 변수가 이념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관련 역사인식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보수이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대 정부 업적 평가 변수들은 이념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두환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보수이념을 가지는 반면, 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진보이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인식 관련 변수 가운데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인식 변수의 영향력은 미미한데 비해 정부 업적평가 변수가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오래된 역사적 사건보다는 가까운 사건이나 기억이 현재의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업적 평가 변수들 가운데서도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부업적 평가에 비해 노무현과 박근혜 정부업적 평가가 정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이념성향 결정요인: 선형 회귀분석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오차 (S.E.)	유의확률
인구 및 사회 경제 변수	연령			
	소득	.219	.041	.000
	학력	-.006	.014	.684
	호남출신	-.235	.047	.000
	대구경북출신	-.157	.268	.557
해방정국 & 한 국전쟁 인식	해방정국 이승만의 긍정적 평가	.701	.174	.000
	해방정국 미국정부의 긍정적 평가	-.069	.096	.473
	한국전쟁 남한/미국 책임 인식	.293	.074	.000
	한국전쟁 북한 책임 인식	-.052	.172	.760
역대 정부업적 평가	한국전쟁 북한 책임 인식	-.019	.124	.878
	이승만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62	.059	.293
	박정희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38	.050	.448
	전두환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124	.046	.007
	김대중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87	.060	.148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101	.058	.000
	박근혜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93	.050	.042
모형 요약	N; 963 R: 0.514 R <sup>2</sup> : 0.251 S.E.: 1.58			

<표 10>은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앞의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만 정당일체감으로 바뀌었고 역사인식과 관련한 독립변수들은 유사하게 설정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인구, 사회경제 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대구경북출신이 정당일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관련 역사인식 변수들이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았고,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대 정부 업적 평가 변수들 가운데서는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부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업적을 높게 평가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정당일체감 결정요인: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  
(더불어민주당: 1, 미래통합당: 0)

구분	독립변수	회귀계수	유의확률	Exp(B)
인구 및 사회 경제 변수	연령	-.330	.001	.719
	소득	-.012	.719	.988
	학력	.027	.799	1.027
	호남출신	1.129	.167	3.094
	대구경북출신	-1.732	.000	.177
역사인식	해방정국시기 이승만의 긍정적 평가	-.118	.581	.295
	해방정국시기 미국정부의 긍정적 평가	-.393	.072	.016
	한국전쟁 남한/미국 책임 인식	-.272	.475	.762
	한국전쟁 북한 책임 인식	-.130	.637	.878
대통령 업적 평가	이승만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136	.319	1.145
	박정희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303	.008	.739
	전두환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267	.009	.765
	김대중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322	.011	1.379
	노무현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584	.000	1.792
	박근혜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603	.000	.542
모형 요약	N: 668, Cox& Snell R <sup>2</sup> : 0.368 Nagelkerke R <sup>2</sup> : 0.524, 우도비 검정: 카이제곱 306.537, 자유도 16, 유의확률 0.000			

## VII. 결론: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본 장의 목적은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역사인식의 주요 내용과 2005년 1차 조사부터 올해 4차 조사까지 네 차례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역사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역별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와 비교하면 역사적 자긍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자기 역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긍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해방정국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가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승만과 미국정부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그리고 연령대별로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 미래통합당 지지자, 60세 이상 응답자들이 이승만과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진보성향,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 젊은 응답자일수록 이승만과 미국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성과 소련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연령대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 편차가 적지 않았다. 진보층과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보수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북한, 소련, 중국의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넷째,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1위,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순으로 높았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9, 1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등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도 시간의 흐름과 조사 시점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의 업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역사인식이 정치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이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정부업적 평가 변수들은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정국이나 한국전쟁 등 오래 전 과거 역사보다, 가까운 과거의 역사와 정부의 업적평가가 정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과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내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 이념성향, 지지정당 등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학계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상반된 역사적 관점의 날카로운 대립과는 달리 대중들은 비교적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응답자의 다수가 한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서도 부족한 영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수 국민들은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현대사 해석의 정치화 현상이 대중의 역사인식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업적 평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1위로 평가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일관되게 높게 평가하는 결과는 국민들이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 정치권에서는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현대사를 둘러싼 상반된 해석이 대립하는 역사해석의 정치화는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의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적대적 진영대결과 양극화의 정치 현실이 역사해석의 정치화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진영은 절대 선이고 반대 진영은 타도해야 할 절대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진영논리가 역사인식에 적용이 되면 자신의 역사적 시각을 절대화하는 독선과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진영논리로 역사를 보게 되면 역대 정부와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를 고루 인정하기 보다는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념적 다양성이 허용되는 민주화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평가는 피할 수 없다. 학계와 지식인 사회의 역사해석의 대결과 경쟁은 역사적 이해의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역사문제를 정치에 활용하거나 역사해석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역사해석의 정치화 현상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치권과 지도층 인사들이 역사문제의 정치화를 주도하는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우려가 된다. 한국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둘러싸고 그의 일본군 복무와 친일 행적을 이유로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여권에서 표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여당 의원들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하는 내용의 소위‘국립묘지 파묘법’을 발의했다. 나아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파묘(破墓)를 주장하는 취지의 기념사를 하면서 파장이 확산되었다. 그는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판하고,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을 민족 반역자로 지칭했다. 현충원 파묘 논란이나 광복회장의 기념사 논란은 반일민족주의 시각에서만 역사를 재단하는 편협성을 보이고 있다. 역사해석의 정치화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 과거의 갈등을 되살리고 국민들을 편 가르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다(최장집 2020; 진중권 2020). ■



## 참고문헌

- 강만길 외. 1985.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 한길사.
- 강우진. 2020. 『박정희 노스텔지어와 한국 민주주의』. 서울: 고려대 아연출판부.
- 김동춘. 2011.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경제와 사회> 89: 333-366.
- 김일영. 1995. “박정희 체제 18 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정치학회보』, 29(2): 181-215.
- 김형아. 2005. 『유신과 중화학 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서울: 일조각.
- 김호기, 박태규. 2019. 『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서울: 메디치.
- 민족문제연구소. 2012. 『역사다큐 백년전쟁 1부: 두 얼굴의 이승만』. <https://Youtube/nZyPgknWfn8>. (검색일: 2020. 6. 19).
- 박명립 편. 2006. 『해방전후사의 인식 6』. 서울: 한길사.
- 박명립. 1995.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하였는가?: 남침-북침 논쟁의 종결을 위한 자료와 사실의 검토와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28(2): 81-132.
- \_\_\_\_\_. 2003.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 2』. 파주: 나남.
- 박찬표. 2010. 『한국의 48 년 체제: 정치적 대안이 봉쇄된 보수적 패권 체제의 기원과 구조』. 서울: 후마니타스.
- 박태균 편. 2017. 『쟁점 한국사: 현대편』. 서울: 창비.
- 박현재 외. 1987.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 서중석. 1995. “정부 수립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90: 427-473.
- 서중석. 2017.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8: 경제성장, 박정희 공로, 위험한 착각』. 서울: 오월의 봄.
- 손호철 외. 1991. 『한국전쟁과 남북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 손호철. 2011. “박정희 정권의 재평가: 개발 독재 바람직했나”. 『현대 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손호철 저, 323-345. 서울: 이매진.
- 송건호 외. 2004. 『해방전후사의 인식 I』. 서울: 한길사.
- 송복 외. 2017. 『박정희 바로보기』. 서울: 기파랑.
- 심용환. 2015. 『역사전쟁-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서울: 생각정원.
- 유영익. 2013. 『건국대통령 이승만』. 서울: 일조각.
- 이완범. 2015. “건국논쟁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정통성.” <한국의 정치 70년>. 이완범 편.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2009.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 임병철. 2016.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그 이후?” 『역사교육연구』, 24: 255-290.
- 전상인. 2000.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아시아문화』, 16: 19-56.
-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서울: 책세상.
-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서울: 후마니타스.
- 진중권. 2020. “국가주의 vs 민족주의, 역사가 전쟁이 됐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26일.
- 최장집 편. 1985. 『한국현대사 I: 1945-1950』. 서울: 열음사.
- 최장집. 2020. “현대사를 이해하는 다른 관점: 이승만, 한국을 자유주의에 편입시키고 민주화 초석 놓아.” <중앙일보> 8월 31일.
- 한배호. 2008. 『자유를 향한 20세기 한국정치사』. 서울: 일조각.

Cummings, Bruce.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m, Byung-Kook. ed. 2013.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저자: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장,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장, EAI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선거정치, 의회정치 등이다. 최근 논저로는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2019), "Politics of Party Polarization in East Asia: A Comparison of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2018, 공저),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2018)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김세영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sykim@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12일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편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정치정체성” 979-11-6617-028-7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